

01 교회소식

성령의 역사, 은혜의 기회!

GCN방송으로 생중계 되어 전 세계에서 참석한 '은사집회', 하나님께 함께하시는 폭발적인 치유와 응답의 현장을 소개한다.

02 생명의 말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시리즈

현재 어떠한 믿음의 행함을 보이고 있는가 하는 것이 곧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나타내 주는 척도가 된다.

03 권능의 역사

무안단물 침수 후...

성령의 역사가 참임을 증거하는 권능의 '무안단물'을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러시아 옐레나 리트비나 집사의 간증.

04 간증

"주님이 치료해 주셨습니다"

국내는 물론 콜롬비아, 케냐 등 해외에서 화상을 통해 1월 은사집회에 참석한 수많은 성도가 치료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 만민뉴스

제915호 2020년 2월 16일(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 폭발적인 권능의 역사로 희귀병 등 각색 질병 치유돼

### 2020년 다시 시작된 환자를 위한 '은사집회'



사도행전 19장 11~12절에 보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가 나갔다고 기록되어 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당회장 이재록 목사에게 기도 받은 권능의 손수건을 통해 크고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심으로 성경이 참이며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확증하고 계신다.

GCN방송(www.gcntv.org)을 통해 위성, 유튜브, 인터넷으로 전 세계에 생중계 되는 가운데 지난해 전반기에 이어 올해에도 환자를 위한 은사집회가 진행되었다. 지난 1월 31일 금요일아침 1부 예배 시 당회장 직무대행 이수진 목사는 감정을 제어하라(롬 12:19-21)는 말씀을 증거하였고, 2부 은사집회에서는 회개와 성령 충만함을 위한 찬양과 기도의 시간을 가진 뒤 권능의 손수건을 들고 국내외에서 접수된 환자들의 병명을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였다.

그 결과 현장에서는 물론 인도, 콜롬비아, 페루, 몽골, 케냐, 민주콩고, 캐나다 등 화상을 통해 전 세계에서 함께한 성도들이 동시 다발적인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였다. 신경이 살아나 시력과 청력이 회복되고, 희귀병이 치료되는가 하면 치아가 교정되고, 걷지 못하던 사람이 걷게 되는 등 다양한 간증들이 접수되었다.

이 밖에도 각종 통증을 비롯 무릎관절염, 허리디스크, 척추측만증, 오십견, 과민성대장증후군 등 각색 질병이 치료되어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렸다. 은사집회는 매월 마지막 금요일아침에 시 진행된다.



## "주님께서 근긴장이상증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루파 구룡 (50세, 인도 인도르 지역)

1년 전, 갑자기 오른손에 통증이 느껴지면서 손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어깨와 목도 통증과 함께 제 의지와 상관없이 흔들렸지요.

큰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한 결과, 'Cervical Dystonia'(경부 근긴장이상증)이었습니다. 손가락까지 침범하는 경부 근긴장이상증(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불수의 근육의 수축으로 인해 비정상적인 운동과 자세를 보이는 증상)으로, 의사는 약을 주며 목 운동을 하라고 하였습니다.

통증을 없애기 위해 많은 약을 먹었지만, 통증은 참을 수 없을 만큼 심해져 갔습니다.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으니 제게 밤은 고통이었고 죽기를 바랐지요.

뿐만 아니라 허리까지 구부러져 주사를 맞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허리에 무엇이 닿으면 심한 통증이 왔고 1분도 앉아 있을 수 없어 늘 한쪽으로 누워 있어야만 했지요. 또한 목이 흔들려 말도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이웃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께 치료 받기 위해 유튜브를 검색하던 중 이재록 목사님의 '환자를 위한 기도'를 찾게 되었지요. 2020년 1월 10일, 델리만민교회에 전

화하니 이재록 목사님의 권능의 사역이 담긴 '권능' 영상을 시청할 것을 권유했습니다. 그 안에는 이 목사님의 기도로 치료된 놀라운 간증들이 담겨 있었지요. 저는 델리만민교회에 전화해 저도 치료받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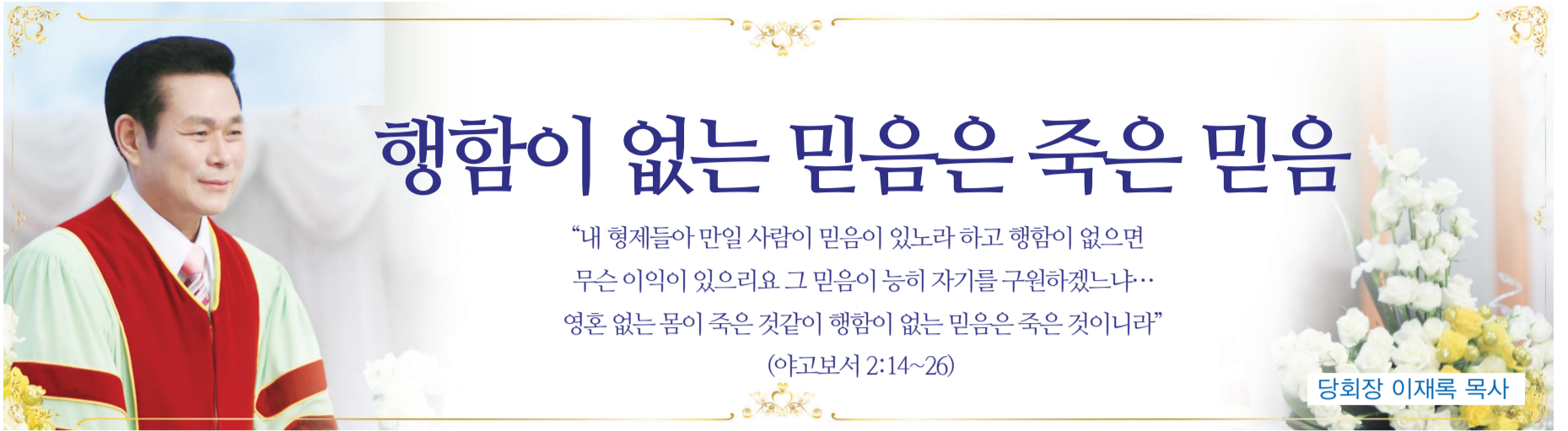
그러자 만민중앙교회에서 개최하는 은사집회 때 기도를 받으면 치료받을 수 있다는 것과 이에 앞서 제가 해야 할 일에 대해 알려 주었지요. 저는 이재록 목사님의 '십자가의 도'와 '믿음의 분량' 설교를 듣고, 질병은 대체적으로 죄로 인해 온다(출 15:26)는 것을 안 뒤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다뤘던 일들을 회개했습니다.

드디어 1월 31일 금요일아침 2부 시 유튜브 방송 'GCNTV HINDI'를 통해 만민중앙교회 은사집회에 참석했습니다. 강사 이수진 목사님이 권능의 손수건으로 기도해 주실 때 불이 제 몸에 뜨겁게 임하

는 것을 느꼈지요. 저는 걸어 보려고 시도했습니다. 놀랍게도 허리를 바로 펼 수 있었고 목, 어깨, 등의 통증이 사라졌으며 심하게 흔들리던 증세도 미세하게만 남았지요. 이제는 말도 더듬지 않고 제대로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의자에 앉기도 하고 잘 걸어 다닐 수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 손가락까지 침범하는 경부 근긴장이상이 관찰됨.



#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야고보서 2:14~26)

당회장 이재록 목사

우리가 아무리 아름다운 말로 사랑을 고백한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그 마음입니다. 진실한 마음에서 나오는 사랑의 고백이어야 진정한 가치가 있지요.

또한 그 마음이 진실하면 반드시 행함으로도 나타납니다. 진리 안에서 마음은 담겨 있는 진실함이 반드시 행함으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참사랑은 무엇이며, 믿음과 사랑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1. 행함이 있는 사랑만이 참사랑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수없이 고백할지라도 정작 그 마음이 진실하지 못하다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며, 또한 행함이 없는 고백 역시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요 14:15) 말씀하시며, 사랑에는 반드시 행함이 따른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셨지요. 이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도 참사랑은 반드시 행함을 통해 나타나며, 이러한 행함이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도 그 사랑을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도 반드시 그 사랑을 행함으로 나타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한 대로, 하나님께서 보여 주신 가장 큰 사랑의 행함은 우리 죄를 대속케 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내어 주신 것이었지요. 또한 때를 따라 응답과 축복, 표증으로 우리에게 그 사랑을 확증해 주십니다.

야고보서 2장 14~17절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

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했습니다. 믿음에 대한 이러한 원리가 사랑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7~18절에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나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권면하신 대로, 행함 있는 믿음이 참 믿음인 것처럼 사랑에도 행함이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 2. 믿음과 사랑과의 관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즉 영적인 사랑을 알고자 한다면 먼저 살아 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사랑의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을 모르고서는 영적인 사랑을 깨달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3차원의 세계에 살고 있는 우리가 4차원인 영의 세계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어야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이 믿음을 통해 살아 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또한 믿음이 있기에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진리 안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믿음이 점차 성장할수록 천국에 대한 소망도 커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이해하게 되며, 하나님의 사랑도 깨우쳐 알게 되므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믿음을 가졌을 때 느끼는 사랑과 점차 믿음이 성장하고 살아 계신 하나님에 대해 자세히 알아가면서 느끼게 되는 사랑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을 받으면 죄 사함을 주시고 구원을 얻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져서 감사의 눈물을 흘리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 깊은 곳에서 온전히 느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통해 믿음이 성장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느

끼고 알게 될수록 그 사랑 또한 더 깊이 느낄 수 있지요. 어린아이의 믿음에서 성장하여 장성한 아버지의 믿음의 분량에까지 이르러야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고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요일 2:12~14).

더 나아가 사도 바울이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라고 고백한 것처럼(갈 4:19), 성령으로 영을 낳는 해산의 수고를 해 본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온전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며 애뜻한 사랑으로 돌보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간절히 느낄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믿음이 성장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 깊이 깨닫게 되며 사랑의 마음도 더욱 커지므로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온전한 사랑의 차원에도 가까이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 3. 믿음의 행함은 곧 사랑의 증거

야고보서 2장 22절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했습니다. 믿음이란, 행함을 통해 비로소 온전케 되는 것이니 믿음 성장과 함께 커지는 사랑도 결국은 행함을 통해 온전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어떠한 믿음의 행함을 보이고 있는가 하는 것이 바로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나타내 주는 척도가 되는 것이요, 믿음의 행함은 곧 사랑의 증거가 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경외했기에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즉시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아브라함의 행함을 보시고 의로 여기셨는데, 이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함이 곧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증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창 22:12).

다윗이 물맷돌만을 가지고 나아가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단번에 쓰러뜨릴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기에 다윗은 도저히 가만

**만민뉴스**  
등록 다-1840(1989. 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정성구  
인쇄인 이호영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www.manminnews.com

**만민중앙성결교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29  
대표전화 02) 818-7000



-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 1번 출구에서 환승 5536번 시내버스(교회앞 하차)
  - 2, 3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거리
- 7호선 남구로역에서**
  - 2번 출구에서 구로남초등학교 방향, 도보 10분 거리
- 시내버스**
  - 5536, 5615번(교회앞 하차)
  - 503, 504, 571, 652, 5618, 5619, 5626, 5630, 5712, 5714번(디지털단지 오거리 하차)
- 마을버스**
  - 금천 07번(교회앞 하차)
- 교회버스**
  - 각 지역별로 서울시 및 경기도 일원에 운행
  - 문의: 차량국(02)818-7391~3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저녁예배	3:00 PM
주일 빛과소금성교회 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성교회(오소업) 예배	11:00 PM
금요철야예배	11:00 PM
수요예배	7:00 PM
화요찬양예배 [청년·가나안]	8:30 PM
수요찬양예배 [빛과소금]	9:00 PM
토요찬양예배 [중·고등부]	4:00 PM
다녀오실아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다만 정기구독 시 **우송료만은** 정기구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manminnews.com 070-8240-5609

**우리은행** 1002-459-392191 (예금주 박정길)

히 있을 수 없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 누구도 엄두내지 못한 일을 믿음으로 행했고,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서 지극히 사랑하게 되면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행함이 나옵니다. 바로 이러한 사랑이 있었기에 많은 선진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기쁨으로 순교의 자리에 이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 4. 사랑의 증거를 나타내 보이시는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때로는 세상에서 잠시 동안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 어떤 핍박이나 어려움을 불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일 믿음의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사랑을 나타내 보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무런 사랑의 증거나 표현을 해 주시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물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자체가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죄의 담을

헐어 주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내어 주신 것이 가장 큰 사랑의 증거인 것이지요. 더구나 영원히 거할 천국에 아름다운 처소를 예비하시고, 우리가 행한 만큼 상급으로 갚아 주시며, 영화로운 면류관과 빛나는 영광을 주시는 그 사랑을 어디에 비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만약 이 땅에 사는 동안 순간순간 믿음의 행군을 해 나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해도 응답이 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도 아무런 축복이 오지 않는다면, 또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로 가득하다면 '하나님께서 정녕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마음 깊이 느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사랑의 증거를 나타내 주십니다(잠 8:17).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을 만나 주셔서, 죄로 인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에게는 구원의 역사로, 질병으로 고통 받는 사람에게는 치료의 역사로 함께해 주시지요. 궁핍한 이에게는 풍요로움으로, 마음의 소원이 있는 이에게는

응답으로 함께하시며,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영계의 비밀한 것까지도 알려 주시고 성령의 깊은 감동함 가운데 말씀들을 풀어 주시기도 합니다.

진정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반드시 행함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행함이 믿음 성장과 더불어 더욱 온전하고 아름답게 변화되며, 종국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는 믿음의 행함으로 나올 때에 그 마음에는 하나님께 대한 변함없는 온전한 사랑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내보이면 이것을 사랑의 증거로 받으시고 반드시 그에 대한 응답으로 사랑을 표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믿음의 행함을 나타내 보임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에 이르며,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넘치게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무안단물에 침수 후 고혈압과 만성두통이 사라지고 그림을 잘 그릴 수 있게 되었어요!

엘레나 리트비나 집사 (59세,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저는 러시아 푸시킨 시 시립병원에서 수간호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6년 10월, 만민중앙교회 창립 34주년 기념행사에 WCDN(세계기독교의사네트워크) 러시아 콘퍼런스 조직위원으로 초청 받아 한국을 방문하였습니다.

당시 심한 무릎 관절염으로 인한 극심한 통증 때문에 잘 걷지를 못했습니다. 무릎을 펴거나 구부릴 수도 없었지요. 특히 계단을 오르는 것은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기도로 부기가 빠지고 계단을 오르내려도 통증이 전혀 없어 모든 일정을 행복하게 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일정으로 전남 무안군에 위치한 무안단물터를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소원을 품고 믿음으로 무안단물에 침수해 기도하려는데 아주 심한 두통이 밀려왔습니다. 두통이 얼마나 심했는지 기도제목은 생각도 나지 않고, 오로지 "주님!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두통을 치료해 주세요!"라고만 되뇌었지요.

다음 날 출국하는 아침, 제 컨디션은 놀랄 만큼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상트페테르부르크로 돌아온 제게 더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지요. 어려서부터 고통 받던 만성 두통이 사라진 것입니다. 저는 항상 두통약을 소지하고 다니며 아플 때마다 먹곤 했는데, 머리가 전혀 아프지 않았습니다. 고혈압도 있었는데 한국 방문 이후 혈압을 측정할 때마다 정상으로 나왔지요.

게다가 더욱 신기한 간증이 있습니다. 만민중앙교회 방문 후 저는 손녀가 다니는 학교 사생대회에 함께 가게 되었는데, 같이 그리자는 손녀의 말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지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릴 적부터 그림을 너무 못 그리던 제가 머리와 가슴에서 예술적 열망이 뿜어져 나오면서 제 손이 그것들을 표현해 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제 그림을 본 주변 사람들은 "우와! 그림을 정말 잘 그리시네요. 화가신가 봐요"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너무나 신기했습니다.

그 뒤로 3개월 동안 16개의 그림을 그렸지요. 저는 그림을 그리는 것이 너무 행복했고, 제 그림을 볼 때마다 '이게 정말 내가 그린 그림인가!' 하고 놀랄 정도입니다.

그림을 그릴 때면 무언가 속에서부터 희열이 넘치지요.

이후 저는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만민중앙교회 방문 시 당회장님의 기도를 받고, 또 무안단물에 침수한 뒤 고질적인 두통이 싹 사라진 후 바로 뇌의 영역 중 창의력과 예술 활동을 주관하는 뇌세포가 살아난 것이 아닌가?' 하고 말합니다.

만일 전문 화가가 제 그림을 본다면 부족할 수 있겠지만, 놀라운 것은 제가 태어나서 한 번도 미술을 배워본 적이 없고 너무도 못 그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하나님은 분명 살아 계시고, 하나님은 치료하시며, 지금도 그분을 찾는 이들에게 그 영광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라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 \*무안단물이란?

출애굽기 15장 22~25절에 기록된 약 3,500년 전 구약시대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된 역사를 재현하듯 지난 2000년 3월 5일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기도를 통해 무안만민교회 앞 바닷가의 짠물이 단물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났다.

그 후 지금까지 무안단물을 믿음으로 활용할 때 각종 질병이 치유되고 마음의 소원에 응답 받는 놀라운 역사가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다.



## “붙어 있던 치아가 보기 좋게 이동하였습니다”

**콜롬비아만민교회** 알마 솔라노 성도 (58세)

콜롬비아만민교회 유튜브 생방송을 통해 저는 만민중앙교회 주일 예배와 다니엘철야 기도회를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은사집회 소식을 듣게 되었지요.

제 치아는 아랫니들이 벌어져 있는데, 특히 중간 치아가 서로 붙어 다른 치아와의 사이가 더 많이 벌어져 있어서 보기

가 좋지 않았습니다. 치과에서는 1년 동안 교정 브래킷을 해야 한다고 했지요. 1월 은사집회 시 강사 이수진 목사님이 권능의 손수건 기도를 해 주실 때 치아에 손을 얹고 기도를 받았는데, 약간의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그 뒤 붙어 있던 치아가 옆으로 이동해 바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 기도 받기 전

기도 받은 후 ▶

## “S자로 심하게 틀어진 척추가 펴졌습니다”



**중국 1교구** 이인순 집사 (63세)

저는 15년 전, 내리막길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심하게 넘어져 골반이 틀어지면서 척추까지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골반과 척추는 점점 더 심하게 틀어져 몸이 S자로 변형되니 앉아 있을 때조차 몸이 아주 많이 오른쪽으로 기울어질 정도였습니다.

양다리가 항상 무겁고 허리 통증은 심했으며, 서 있으면 오른쪽 다리가 왼쪽보다 3cm나 짧았지요.

이번 은사집회 소식을 듣고 만민기도

원 은사집회를 참석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였고, 3일 금식과 함께 변화되지 못한 부분을 통회자복 하며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하였습니다.

1월 31일 금요철야예배 2부 은사집회 시 강사 이수진 목사님의 권능의 손수건 기도(행 19:11~12)를 받았는데, 통증이 사라지고 몸이 가벼워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심하게 틀어진 몸이 놀라울 정도로 많이 펴져 몸을 바르게 할 수 있었지요. 할렐루야!

X-ray 촬영



▲ 기도 받기 전

요추부 측만증으로 좌측 골반이 위로 올라가 다리 짧음의 원인이 되고 있다.

## “신장과 어깨 통증을 깨끗이 치료받았습니다”



**몽골만민교회** 오르트나산 집사 (44세)

2010년 온몸이 붓고 혈압이 높아지며, 두통에 시력까지 나빠졌습니다. 병원 진

단 결과, 의사는 “신장에 염증이 심하니 움직이면 안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몸을 무리하게 사용하는 바람에 신장 통증이 심해졌고, 거기에 어깨 통증까지 왔습니다.

1월 31일 은사집회 시 강사 이수진 목사님의 권능의 손수건 기도를 받을 때 마음이 평안해지면서 신장의 통증도 사라졌습니다. 이후 활동을 많이 하고 원하는 대로 먹어도 통증이 전혀 없으며, 어깨 통증까지 온전히 치료돼 이제는 일할수록 힘이 넘칩니다. 할렐루야!

## “신경 문제를 치료받아 지팡이 없이도 잘 걷습니다”



**케냐 나이로비만민교회** 파니스 아인도 성도 (58세)

저는 손과 다리 신경에 문제가 생겨 고통 받아 왔습니다. 지팡이를 의지하여 겨

우 걸었고 손은 잘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병원 치료도 소용없었지요.

만민중앙교회 은사집회 소식을 접하고 믿음으로 치료받기를 사모해 준비했습니다. GCN방송 생중계로 케냐 나이로비만민교회에서 은사집회에 참석했지요.

강사 이수진 목사님의 권능의 손수건 기도를 받을 때 손에 땀이 났고, 다리에서 발까지 무언가 빠져 나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 뒤 다리에 힘이 주어져 지팡이 없이도 잘 걸을 수 있었고 손도 잘 움직일 수 있게 되었지요. 할렐루야!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주일 대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철야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변영1로 34 ☎041)881-7000, 010-3030-7025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 550번길 39-33 ☎062)513-2455, 010-8888-0727
- 구미만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금오대로6길 30 ☎054)920-4512, 010-3343-1537
- 김해만민성결교회 경남 김해시 삼정동 43-15 메디피아 4층 ☎010-6218-0703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09-15 ☎054)281-2468, 010-9773-7017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26 ☎042)625-1205, 633-6283, 010-5434-3927
- 마산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30-6 ☎010-8741-2073

- 목포만민교회 전남 목포시 용당로 281, 종원빌딩 ☎061)284-3133, 010-2629-8275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해제지로 167-82 ☎061)452-7443, 010-3153-1723
- 밀양만민교회 경남 밀양시 사천서길 36 ☎055)353-9192, 010-9382-2073
- 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168 ☎051)805-3898, 010-9140-4194
- 사랑만민교회 충남 계룡시 엄사면 향한리 374 ☎042)841-0091, 010-7195-1099
- 사산만민교회 충남 서산시 무학로 1895 ☎010-6306-9798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미시령로 3383 ☎033)637-0271, 010-7733-1327
- 순천만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못들길 27 ☎070-4028-2515, 010-2536-2515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변영로169번길 22 ☎041)546-1537, 010-2672-0244
- 여수만민교회 전남 여수시 문덕3길 11-2 ☎061)652-8311, 010-2325-1228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평동로2길 6 ☎063)853-0675, 010-3637-0263

-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절길 30 ☎063)223-9991, 010-4202-1537
- 제주만민교회 제주시 절물 2길 32 해피하우스 701호 ☎064)712-0058, 010-2689-2332
- 진주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인길 17, 2동 3호 ☎055)852-5815, 010-9196-3927
- 천안만민교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1길 5 ☎041)577-7077, 010-3447-7077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가락길 71 ☎043)293-7077, 010-8291-7173
- 춘천만민성결교회 강원도 춘천시 옥산포길 17-7 ☎010-2090-7710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용산동 1210 ☎043)845-0617, 010-2447-9217
- 강동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508, 호유빌딩 지하 ☎02)489-3766, 010-2201-0542
- 검단지성전 인천시 서구 완정로 162 ☎010-5611-725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46, 광명빌딩 5층 ☎031)552-7397, 010-2290-1856
- 부평지성전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 112, 5층 ☎010-5611-7254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172 ☎02)995-9951, 010-7736-9333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아람로 95 ☎010-2208-5719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문로 150번길 26 2, 3층 ☎031)202-8480, 010-4820-1700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덕산2로 22, 은성빌딩 3층 ☎031)485-9143, 010-7773-0357
- 영종도지성전 인천광역시 중구 은하수로 351 832동 402호 ☎010-9972-0743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3, 2층 ☎031)840-2906, 010-4710-9649
-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아셀대천로 117번길 12 ☎031)635-9103, 010-2718-7458
- 인천지성전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 120 백세빌딩 10층 ☎032)863-9857, 010-9972-0743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춘로 18, 아원B/D ☎031)905-2419, 010-4710-9649